



민간 주도 '전북문화재단' 설립

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블로그](#)

전북지역 문화예술 업무를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전북문화재단'이 올해 설립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향토색 짙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10월까지 분야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도는 전북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우선 문예진흥기금 15억원을 출연하고 도 소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기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문화재단은 ㉠문화정책 수립 ㉠문예진흥기금 운용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도민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맡게 된다.

하지만 문화재단 재원의 대부분을 전북도가 출연할 계획이어서 민간 영역의 독립성과 효율성 등이 훼손될 우려도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 주도의 문화예술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주도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효율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